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 장수 두 동인지 나란히 통권22호 - 충남 「白樹文學」과 「堤川文學」/향토문인들 집념의 결실/지방문단 활성화 밑거름(서울경제신문 11월1일 姜升遠기자)

● “북한관계 자료집 잘 팔린다” 「조선통사」베스트셀러 8위에 / ‘호기심때문’ 신비감 제거 도움(한국일보 11월1일 金龍善기자)

● 올 노벨문학상 수상작 출간경쟁 - 나지브 마흐푸즈 수상 발표이후 4종자와 / 서점가 베스트셀러... 당분간 인기 계속될 듯(한국일보 11월1일)

● “출판사, 文藝誌화한다” - 주제 제시 통한 기획소설 추진 / 선거 등 한국사회현상 다양하게 다뤄 / 기존 역할 보완... 우수신인 발굴도(중앙경제신문 11월2일 朴海鉉기자)

● 출판사를 찾아서 - 열화당 / 미술관계 서적만 18년 / 71년 문고본 낸 뒤 300여종 전문서적 발간 / 전통보존 위해 낸 「굿시리즈」는 자랑거리(스포츠서울 11월2일 박찬기자)

● 창간호-월간 「새」/주간 「부동산뱅크」월간 「아트뉴스」(스포츠서울 11월2일)

● 문단에 ‘반외세’ 기류-무역마찰 등 일련의 현실상황 반영 / 「반미소설선」 「반미시집」 등 잇단 출간 / 감정 편승한 소재주의 · 상업주의 경계해야(중앙일보 11월2일 李京哲기자)

● 흥건축과 한마당 행사-5~12일 신수동 출판단지전시장서/이집트 건축가의 실화 출판 계기/흥과 전통가옥의 참뜻 일깨워(서울경제신문 11월3일 鄭在淑기자)

● 공산권 교포작가 작품출간 잇달아-자유화 이후 10여종 국내에 번역 소개/망향의 그리움 등 절묘하게 묘사/정서적 소재 공감주는 부분 많아/만하늘 아래서도 꽃피는 한국인의 문학...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(서울신문 11월4일 朴康文기자)

자)

● 도깨비 · 장승 모습 화보 출간 - 옛그림 기와에 새긴 것 집대성 「도깨비」/전국에 남아 있는 것 모두 촬영 「장승」(서울신문 11월4일)

● “한국 도깨비 한자리에” - 삼국~조선조 문양 74점 이색 디자인 / 그래픽 디자이너 安尙秀씨 「도깨비」 펴내 / “풍부한 표정, 남성적線條에 매료/벽돌 · 기와 · 문짜서 수집... 현대적 형상화(조선일보 11월4일 金泰翼기자)

● “교육도서, 다양해지고 있다” - 교육비판서 어린이 무크지까지 / 외국책 번역서 탈피... 국내인 저자 몰 많아/ 학부모 · 중고생들이 읽을 책은 아직 빈약(중앙경제신문 11월5일 金成熙기자)

● “문학의 길은 인간해방에 있죠” - 대하소설 「민란시대」 펴낸 원로작가 朴淵禧씨/專制단압 맞선 백성들 삶 그려/古稀맞아 장편소설 동시 출간/15년간 창작전념... 長短篇 80편 발표(경향신문 11월5일 安健燮기자)

● 「西藏만다라 集成」 5國 공동출간 - 불교의 압축 세계도 / 한국전통문양 「도깨비」 펴내 / 「장승」 사진 자료 한눈에(경향신문 11월5일)

● “전쟁이 남긴 슬픈 교훈, 밥과 집은 영원한 주제” - 「마당 깊은 집」 발표한 金源一씨/어려운 시절忍苦로 살아온 어머니像 그려 / 분단의 아픔 체험적 이야기로 챙기고 싶다(동아일보 11월5일 高美錫기자)

● “망향40년... 한라산으로 오르고 싶다” - 「火山島」의 재일작가 金石範씨 귀국 인터뷰/내 작품 국내 민족문학과 같은 차원 취급을/독재 싫어 “조선” 국적... 북한 지지 뜻 아니다(중앙경제신문 11월6일 朴海鉉기자)

● 해방3년 문학 활발한 재조명 - 식민시대 청산 세 질서 찾던 문학사 격동기/작품 연구논문 잇따라... 문학사조 집중추적(동아일보 11월7일 高美錫기자)

● “4·3제주 사태는 민족해방투쟁” - 43년만에 고국찾은 「火山島」작가 金石範씨/굴절된 한국현대사 바로잡게/40년간 못냈던 진상 규명대야(경향신문 11월7일 孫東佑기자)

● 한국고유 상징물 ‘영상출판’ 활발 - 화보집 시리즈로 꾸며 잇따라 발간/장승, 도깨비, 호랑이, 태

극무늬 등/다양한 작품 통해 민족정서 표출(중앙일보 11월7일 李憲益기자)

● 이색출판기념행사 늘어 - 공연 · 전시 · 강연회 등 함께 펼쳐/책내용 이해 돕고 선전효과도(한국일보 11월8일 金龍善기자)

● 외국저작권 침해 첫 형사입건 - 일선기획 美 셸던 作 「시간의 모래밭」 무단 출판/국내 출판권 계약한 김영사서 고발조치(한국일보 11월8일)

● 43년만에 고국 찾은 재일교포작가 - 「火山島」 집필 金石範씨/조총련 탈퇴... “내 조국 南도 北도 아닌 朝鮮”(조선일보 11월8일 金亨基기자)

● “反美아닌 民族자존 다루고 싶었다” - 24년만에 「核 반응」 펴낸 「糞地」작가 南廷賢씨 그때 회고/모든 문학의 꿈 발현지는 곧 현실/민중의 삶 떠난 집필 있을 수 없어(경향신문 11월8일 孫東佑기자)

● “민족 동질성 회복에 도움” - 「월북음악가해금 악보집」 출간 민영찬씨(서울경제신문 11월9일 朴淵禧기자)

● “北韓의 모든 것 알 권리가 있다” - 출판인 77명 성명... 구속 즉각석방 촉구/이제까지 부정 일관... 시대 한계 뛰어넘을 때/일단 허용 · 공개... 책 평가는 독자에게 맡겨야(한국경제신문 11월9일)

● 출판계 ‘북한 바로알기’ 77인 선언 - 구속 출판인 석방 촉구... 학계 · 진보정치연합도 성명/출판문화운동협의회는 ‘탄압규탄대회’ 열어/7·7선언 이을배반성 지적... 보안법 폐지 주장(한겨레신문 11월9일 신연숙기자)

● 전태일문학상 정인화씨 첫 수상 - 현대자동화조투쟁 연작시 「불매가」... 11일 시상(한겨레신문 11월9일 趙新희기자)

● 학술단체협의회 · 출판사 대 표 3백여명 - 북한서적 관련 구속 출판인 석방 촉구성명(동아일보 11월9일)

● “좌익서적은 선별 마땅” - 출판경영자 세미나... 오늘부터/“영리 앞서 사회적 사명” 강조/적극적 출판진흥책 입안을(한국경제신문 11월10일 李汀桓기자)

● “핵공포 일깨우고 싶었다” - 반핵소설 「겨울꽃」작가 정도상씨/영광 원자력발전소 다뤄(한겨레신문 11월10일 趙宗禧기자)

● 출판문화협 세미나 박홍수교수 발표 - 가구당 도서구입비 월 877원/화장품 1,277원에도 못미쳐(조선일보 11월10일)

● 해금음악인 자리매김 작업 활발 - 곳곳서 노래발표회 · 가곡집 · 비평집도 출간(한겨레신문 11월11일 오룡기자)

● “좌경 · 외설출판, 법 이전 양식의 문제” - 출판 세미나... 玄勝鍾 · 朴興壽씨 발표내용/자율노력 있어야 출판자유 지켜/독서습관 기를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(중앙경제신문 11월12일 金成熙기자)

● “소외된 삶 애정담아 부각” - 장편 「서러운 꽃」 펴낸 金文洙씨/혼혈아 통해 분단 재조명/민중, 순수 구분 의미 안됨(동아일보 11월12일 高美錫기자)

● “전문잡지 전성시대... 전망결정” - 상업지의 90% 700여종 넘어/고정독자 많아 경영기반 탄탄/85년 이후 급증 2000~4만부 발행(경향신문 11월12일 安健燮기자)

● “책을 선물로... 도서관 나온다” - 5천~5만원권... 내달부터 시행/주고받기 부담없어 이용 많을 듯(한국일보 11월15일 金龍善기자)

● “출판의 자유 한계 있다” - 명예침해 · 외설물 등 규제 마땅/학자들 ‘경영자 세미나’서 주장(한국일보 11월15일)

● “천민들의 한 - 개혁의지 조명” - 시인 鄭棟柱씨 장편소설 「백정」 1부3권 펴내/진주민란 등 소외 계층 투쟁사 그려/全5부 25권 구상... 고증 빼어난 勞作 평가(조선일보 11월15일 金亨基기자)

● “인간해방 꿈 버리지 않았다.” - 시인되어 나타난 「남부군」 실존인물 김영씨/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「한중의 흥」 등 5편 시 발표/64년 특사... “빨치산 낙인” 취직 막혀 과일장수로(한겨레신문 11월15일)

● “대륙향한 길담기 활발” - 서울 펜대회로 몰고 트여 작가들 중국 나들이 빈번/베이징출판사 「한국현대작품」 소개 뜻 밝혀/문화지평 확대 · 연변 한인 문학 발견 큰 수확(한겨레신문 11월15일 趙新희기자)

● “과학책도 베스트셀러 시대” - 쉽고 흥미있는 풀이로 인기/「재미있는 물리여행」 등 6만여부나 팔려/전공분야 내용 생활주변 이야기와 연결(동아일보 11월15일 宋煥彥기자)

● “파리~ 다카르 카레이스체험 기록” - 「사하라일기」 펴낸 시인 崔鍾林씨(경향신문 11월15일 孫東佑기자)

● 문예지 공급과잉... 심각한 경영난 - 너도나도 창간... 과열경쟁 불러/유력지도 흔들... 일부선 돈받고 게재도/진흥기금 기준세워 지원대상 더 늘려야(중앙경제신문 11월16일 朴海鉉기자)

● 출판사를 찾아서 - 창작과 비평사/민족민중에 바탕둔 리얼리즘 지향/처음 낸 「문학과 예술의 사회사」, 30만 기록/「시선」 「3세계총서」 「신서」 등 모든 책에 자부심(스포츠서울 11월16일 박찬기자)

● 美저작권침해 출판업자 첫 고소 - 로맨스 역사소설 시드니 셸던 「시간의 모래밭」/도서출판 일선기획 무단복제 발간(매일경제신문 11월16일 咸承鎔기자)

● “저작권협약 실증” - 해적출판 판권다/무단번역 · 복제... 불법상훈 극성/시드니 셸던 作 「시간의 모래밭」... 첫 형사입건 파문/「아르바트의 아이들」 등 2~3개사 얽혀 티격태격(조선일보 11월17일 金泰翼기자)

● 출판가 - ‘북한바로 알기운동’ 공동광고 눈길 / ‘출판정책 전환’ 제기한 좌담 주목/3개 대형서점 12월 ‘도서권’ 발행/5공’ 정치열기... ‘독서계절’ 잊혀져(한겨레신문 11월17일)

● 「抗日회상」 독립운동사의 산 자료 - 金星淑씨 등 4명의 구술 담은 면담록 나와/李庭植씨가 기록, 金學俊교수 정리/누락된 투사 이름 · 야사 등 많이 발굴/1집 이어 許政씨 등 5명 이야기도 출간 계획(서울신문 11월18일 朴康文기자)

● “문화계에 큰데라 봄” - 억압시대 지식인 묘사 탁월/문단 · 대학가 등서 선풍적 인기(한국경제신문 11월18일 朴聖姬기자)

● “노사문제 부자갈등 그려” - 중편 「1987년 상황-0」의 작가 李相文씨/베스트셀러 「황색인」 이어 또 화제/쟁의진압 유공 중역 승진... 비겁한 아버지 족적 비판(서울경제신문 11월18일 姜升遠기자)